

# 춘천 성 골롬반 가정 호스피스

성 골롬반 의원은 1955년에 설립되었다. 지리적, 경제적 여건상 열악한 상황이었음을 잘 파악한 수녀회에서 주로 의사, 간호사 수녀, 일반 직원으로 병원 가족을 구성해, 시내와 춘천군 촌락 구석구석까지 걸어서 찾아 다니며, 환자 본인과 그 가족들의 건강 검진을 하고 약, 주사, 영양적 측면에서 적극적이고도 일관된 봉사의 손길을 펼쳤다. 그것은 시대적 상황에 걸맞는 가정 간호의 뚜렷한 실천으로, 오늘날 가정 호스피스를 할 수 있게 된 바탕이 되었다.

당시는 주로 결핵, 전염병, 영양 결핍 등으로 죽음에 이르기도 하였는데 수녀님들께서는 결코 외롭지 않은 동반자의 삶이요 절망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다.

그 후 수십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날 경제, 의료면에서 이 조그만 도시도 놀라우리만치 발전해 왔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방, 조기 발견의 건강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발전적 변화에 대한 반대급부로 생겨나는 수많은 불치의 병 특히 악성 신생물의 빠른 증가는 완치가 어려울 때가 많다. 집에서 눕거나 쪼그리고 앉아 고통을 참아내야 하는 환자들에게 호스피스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절박한 간호 목표가 되었다.

## 목적

진행성 질환으로 인해 수술, 항암요법, 방사선요법 등의 치료를 시행했으나 호전의 기미가 없이 임종이 가까워 오는 환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도와 여생을 가장 편안하고 가치있게 보낼 수 있도록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그 가족들이 환자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죽음에 대해 잘 적응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지지하여 주는 것이다.

## 현황

성 골롬반 가정 호스피스는 1989년 4월 두 사람의 영적 상담자와 한 명의 간호사 수녀(외국인)가 시작 하였다. 주로 가정 방문 간호의 연속 기능이 많은 편이었다. 그 후 1991년 1월 호스피스과가 신설 되었고 의사, 간호사, 일반자원 봉사자 7명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해 7월 자체 봉사자 교육이 있었으며, 1992년 9월 가톨릭 호스피스 협회 후원으로 제1차 정규 호스피스 교육을 실시한 이후 이어 올해 9월 제2차 정규 교육을 이틀간 개최하여 많은 관심과 홍보의 효과를 거두었다.

현재까지 등록된 환자는 모두 418명이며 년 평균 사망자 수는 130여명, 현재 방문 대상 환자는 153명 정도이다. 활동지역 범위는 춘천시, 춘천군, 홍천, 가평, 화천, 인제 등으로 1일 왕복 교통권이든 가능한 한 방문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타 시·도에서 찾아오는 환자나 보호자가 있어 각 경우마다 융통성있는 방법을 찾아 최선의 호스피스가 되도록 힘쓰고 있다.

## 조직 및 재정

성 골롬반 의원안에 호스피스과가 설치되어 아이랜드 성 골롬반 수녀회 본부에서 운영기금의 35%를 보조받고 1992년 2월 구성된 호스피스 후원회 및 바자회, 그리고 부정기적인 성금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 현재 호스피스 과장, 의사, 간호사 2명 영적 상담자 1명, 자원 봉사자 30명이 종사하고 있다.

## 환자와의 만남

본 의원(면담, 검사결과, 보고 등)과 시내 2개 종합병원의 정규적(주2회) 방문을 통해 환자

를 알게되고 이 경우는 퇴원 후부터 보다 더 적극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또한 직·간접으로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는 봉사자들의 소개도 있으며 최근에는 각종 홍보를 통해 직접 알고 오는 경우, 그리고 호스피스 체험이 있었던 사별 가족들로부터의 안내를 받고 찾아오는 수도 많아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 가정 호스피스 활동 내용

첫째로 가정 방문을 중요시하며 그 때 환자의 병적상태 및 경제적 상황 등을 파악한 후 팀에서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도움 계획을 세운다. 대개의 경우 환자는 몹시 불안하며 심한 통증호소를 하며, 가족은 안절부절하고 지쳐있는 상태가 많으므로 안정을 돕고자 힘쓰며, 동시에 그들의 기존 신앙을 존중하여 적절히 도움이 될 공동체를 찾아 연결해 준다.

한편, 의사의 적절한 약물 처방 및 간호사의 활력증상 측정, 배뇨, 배변 관리, 섭생문제, 수면문제, 상처나 욕창의 예방과 치료를 도우며 호흡곤란시 이동식 산소 공급과 흡입기를 설치해 돕고 있다. 그 이외에도 번기, 공기침대등을 빌려 드리고 있으며 사후 처리를 돕는다. 한편 가족들이 효율적인 간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기도 하고 봉사자들의 가족 역할 분담도 하고 있다. 그리고 24시간 어느때라도 본 기관과 연

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판단되면 물질적 도움을 드리고, 사별가족 모임을 년 2회 가지며 일부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고있다.

방문 지역은 편의상 나누어 담당하여 하루 단위로 방문 활동을 벌이고 있고, 매일 그 전날 방문 환자에 대해 보고하고 의논한 후 주로 병세의 위중 정도에 따라 당일 방문 계획을 세운다. 봉사자는 주 1회 종사자와 함께 방문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자율적 방문을 통한 탄력성있는 봉사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팀 전체가 월 1회 모임을 가져 평가, 나눔 및 토의사항을 다루고 매달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연도를 바친다.



### 베타니 집 운영

통증 조절이 어려운 환자와 당분간 가족이 환자를 돌보기 어렵거나 기타 사정이 생긴 경우 일시적으로 입원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3개의 따뜻한 온돌방으로 '베타니 집'이 꾸며져 있다. 이곳은 임종만을 목적으로 입원하지 않는다.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약사동 34(우 200-120)**

**호스피스과 연락처 : (0361) 241-3497**